

종합·해설

박-나,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 총력

박, 상인·환경미화원 격려 등 밤샘유세 나, 지하철서 대학로서 바닥 민심 훑기

10·2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5일 여야는 사력을 다한 마지막 득표전을 벌였다. 여야 지도부는 최대 접전지인 서울시장 보선에 당락을 총동원, 법정선거운동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시내 곳곳에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쏟았다.

서울시장 보선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범야권 박원순 후보도 이날 자정까지 총을 아껴가며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부었다.

한나라당 나 후보는 이날도 유세차를 동원한 대형 유세를 하지 않고 '조용한 유세'를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와 선거캠프가 마련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역 부근까지 함께 걸으며 시민들과

원 유세의 대미를 장식했다. 나 후보는 이날 유세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자정 무렵에는 지지자들과 서울광장에 집결,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범야권 박 후보는 이날 0시부터 25개의 뻘뻘한 일정을 소화하며 지지층을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0시 강남 교보타워빌딩 사거리에서 대대적인 기사들을 만났으며 이어 노랑진수산시장·강서농수산시장·남대문시장을 돌며 새벽을 여는 상인들을 격려한 뒤 3시50분에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버스차고지에서 첫차를 타고 운전기사, 승객들과 대화를 나눴다.

박 후보는 또 버스를 타고 청진동까지 이동, 해장국으로 아침을 해결한 뒤 5시50분 관악구 신림동에서 환경미화원과 함께 30번째이자 마지막 '정맥·경청투어'를 열었다.

밤을 꼬박 샌 박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를 마친 뒤 광장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 다시 신도림역 출근길 유세를 했다. 그는 이어 신도림역에서 시청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시민들의 손을 잡고 투표를 독려했으며 시청에 도착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선대위원장과 함께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또 강서·영등포·마포·노원·도봉 등 10개 지역의 전통시장과 대박골, 상가 앞에서 거리유세를 했으며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총집중유세에 참여한 뒤 명동 입구를 출발해 명동성당·정계천·동대문을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동대문시장 '두타' 광장에서 유세를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유세에서 손 대표는 "내일 시민들은 '우리로 함께 잘 살아보자'고 분노의 합성을 지르며 투표장으로 물러갈 것"이라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내일 투표장에 나가자"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또 버스를 타고 청진동까지 이동, 해장국으로 아침을 해결한 뒤 5시50분 관악구 신림동에서 환경미화원과 함께 30번째이자 마지막 '정맥·경청투어'를 열었다.

밤을 꼬박 샌 박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를 마친 뒤 광장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 다시 신도림역 출근길 유세를 했다. 그는 이어 신도림역에서 시청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시민들의 손을 잡고 투표를 독려했으며 시청에 도착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선대위원장과 함께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또 강서·영등포·마포·노원·도봉 등 10개 지역의 전통시장과 대박골, 상가 앞에서 거리유세를 했으며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총집중유세에 참여한 뒤 명동 입구를 출발해 명동성당·정계천·동대문을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동대문시장 '두타' 광장에서 유세를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유세에서 손 대표는 "내일 시민들은 '우리로 함께 잘 살아보자'고 분노의 합성을 지르며 투표장으로 물러갈 것"이라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내일 투표장에 나가자"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또 버스를 타고 청진동까지 이동, 해장국으로 아침을 해결한 뒤 5시50분 관악구 신림동에서 환경미화원과 함께 30번째이자 마지막 '정맥·경청투어'를 열었다.

밤을 꼬박 샌 박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를 마친 뒤 광장 민주당 박영선

승패 가를 변수는

安風효과·투표율·SNS 위력 관심

초점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종 승패를 가를 변수로 '안철수 효과'의 현실화 여부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투표율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위력, 날씨 등도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선거 막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박 후보 지지 선언과 급급 효과를 놓고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등 범야권에서는 안 원장의 지원으로 표심을 정하지 못하던 중도층이 박 후보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박 후보의 지지율에 이미 '안철수 바람'이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25일 박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 원장이 막판에 가세하면서 선거 관세가 박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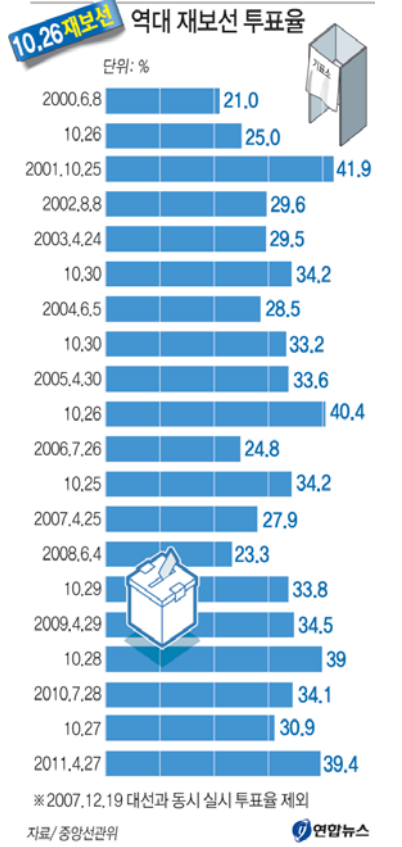
반면 나 후보와 한나라당 측에서는 선거 막판에 이뤄진 안 원장의 지지는 그동안 박 후보의 지지율에 충분

히 반영됐다는 점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안 원장의 지지는 보수층의 결집을 일으키면서 나 후보의 막판 지지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투표율도 두 후보의 희비를 가를 중요 변수로 꼽힌다. 여당 성향이 강한 50대 이상 유권자는 투표율이 안정적인 반면 야당 성향을 보이는 40대 이하의 투표율은 선거 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젊은층의 투표율이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다. SNS는 지지세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력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를 통한 투표독려가 20~30대의 투표율을 5% 포인트 정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의 변수도 주목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기호 10번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유세'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발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인 안철수' 속도낼까

등판시기 저울질...신당 가능성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개 지지가 정치 행보의 일환으로 간주되면서 정치권은 10·26 재보선 이후 그의 행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안 원장의 24일 유세차를 타거나 시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관행에서 탈피, 박 후보 선거캠프를 전격 방문해 덕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편지 한 통만 건넸다. '안철수식 정치 행보'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한 트위터러는 25일 "안 원장은 매우 세련되고 절도 있는 모양새로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나섰다"

며 "응원 방문"이나 "편지 전달"은 기존 정치인들이 흉내 내기 어려운 참신한 형식이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단 안 원장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추가 지지행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선거 이후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안 원장이 정치에 전격 참여할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원장 스스로는 현실 정치

참여에 부정적이나 주변의 강권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필적할만한 후보가 없는 정치 현실이 정치 참여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정치 참여를 선택하게 되면 본격적인 스타의 생기를 엿보면서 '치고 빠지기' 식의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나라당 박 전 대표가 지금껏 해온 정치 행보와도 비슷한 방법이다. 한국 정치 풍토상 정

치권에 일찍이 깊게 발을 들이면 검증 공세로 내상만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안 원장이 정치 행보에 나서더라도 기성 정당을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안철수 현상이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안철수 신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 원장의 정치적 리더십과 이를 뒷받침할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하나 후자는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2011고단4644	유한회사 강진동원 (변경전:유한회사 해제하울)	도로법위반
2011고단4645	신화티앤에스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46	신화티앤에스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47	신화티앤에스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48	신화티앤에스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49	신화티앤에스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50	유한회사 남양문수 (변경전:유한회사 전복봉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4651	주식회사 전주문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4652	유한회사 황제문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4653	한일문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54	대성특수운송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55	대성특수운송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56	유한회사 성진문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4657	유한회사 성진문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4658	태화문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59	한국화물운수 합자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60	한국화물운수 합자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61	한국화물운수 합자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62	서일문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63	서일문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64	대성문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65	한일화물자동차 합자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66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67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68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69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70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71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72	유한회사 연안특수 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73	유한회사 연안특수 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74	유한회사 연안특수 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75	유한회사 연안특수 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76	유한회사 연안특수 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77	유한회사 연안특수 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78	유한회사 연안특수 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79	유한회사 연안특수 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4680	유한회사 연안특수 운수사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1년 9월 8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재판장 판사 최지영

전남·북 출장파티 전문업체

출장뷔페
도시락
식판급식
성당
교회결혼식뷔페
야외결혼식뷔페
철순/팔순잔치
체육대회
야유회
종친회
기업체 각종행사

예의 파티외식산업
본사 ☎ (062)226-0086 | H.P 010-4601-3222

www.party-food.co.kr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영 유지원빌딩 501

서구 세하동 일반주거지역

서구 세하동 동화마을 부근.전. 2차선 도로접합
1.035㎡(313평)(도로 77평포함).매매가 4억 2000만원. 식당. 사무실.기타.적합

건물매매(용봉지구)

- 북구 신안동 용봉지구 옛 대지367㎡(111평).3층. 건물3층 598.8㎡(181평) 매매가4억9000만원. 보증금6,000만원 월330만원.
- 북구 오치동 오치공영앞 대로변 대지298㎡(90평). 건물5층875㎡(265평). 매매가 9억9000만원. 보증금8200만원 월620만원. 상권양호

소태동 잠습지매매.

- 동구 소태동 대야아파트 부근. 잠습지.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거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완도 독섬 매매.

-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 화순군 도곡면 호신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합. 매매가 3.3㎡당 16만원.

010-3616-8698. 062-233-2222

수원지구 상가 분양 전문

학원·병원·한의원·고급식당
독서실·PC방·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국민은행행위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행위 모이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건축시공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도시형 주택전문)
•수익성상가 •안전한재건축
•노후보장 •퇴직자 환영

설계·건축·분양·임대
(검토부터 기획·마감까지 원스톱)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해드립니다.
★원룸 상가 기타 건축할수 있는 토지
항시 구합니다★

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장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공까지(무요상당)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 6천만 최저가 9800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방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9천만 최저가 3억9천만
- 서구 생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접(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능)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정리 임야 1200평 진일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신안군 자음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